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229>

JCCT 2023-11-28

##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

###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백성은\*

Sung-eun Baek\*

**요약** 본 연구는 자녀의 역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ADHD관련문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에 모두 응답한 537명을 대상으로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version 4.2(Model 6)로 직렬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사이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 관련문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어머니의 양육행동, 친사회적 행동,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아동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for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term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The study sample was 537 children who had participated in the ten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erial multiple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were significant, respectively. Third, in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t was found that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mediate it in series. These results provid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especi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Key words** : maternal parenting behavior, prosocial behavior, smart-media addiction, ADHD-related behaviors, children

\*정회원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조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12,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whsistar@dyu.ac.kr

Dept. of Police and Criminal Psychology, Dong Yang Univ,  
Korea

## 1. 서론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관점에서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자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1] 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보유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할[2]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선호받아 성장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제공받을[3] 수 있다. 반면 친사회적 행동 경향이 낮은 아동은 또래와 관계 맺는 것에 두려움을 지니거나 공격성을 드러내는 등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4], 이에 조기 개입하지 않고 방치 시 청소년기 학업성취, 교우관계 등에[5]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이후 시기 부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요인을 면밀히 살펴볼 당위성이 제기된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 중 아동과 가장 밀접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사회화 과정 전반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할[6] 것으로 판단된다. 양육행동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일반적 태도나 행동일[7] 의미한다.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녀의 성격발달을 비롯해 이후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양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주요 요인으로[8] 평가될 수 있다. Baumrind[9]는 자녀에게 애정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독립성을 존중하는 양육행동인 '애정', 자녀가 부모의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는 양육행동인 '통제'의 두 차원을 제안하고 그 중 애정은 낮으나 통제는 높은 권위주의적 유형과 애정은 높으나 통제는 낮은 허용적 유형을 역기능적 양육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역기능적 양육행동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표상하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것을 어렵게 해 친사회적 행동 결여를 비롯해 다양한 적응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10][11][12]. 한편 국내 초등학교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순응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유의한 반면 아버지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결과[13]를 참고했을 때 아직은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이 상당한 아동기의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양육적 돌

봄의 주체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는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14]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미디어가 이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그에 적합한 정보를 검색해 신속하게 제공해준다. 더불어 스마트미디어를 보유하는 연령도 점차 하향화 되고 있고[15],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도 증가하여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역기능적 측면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과거 경험을 고려해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감안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작업, 다채로운 언어적 표현 양식, 비언어적 행동 이면의 의미 등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등 고난도의 과정을 습득하게 됨을 생각했을 때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타인과의 정서적 상호작용 기회 감소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지체를 불러올 수 있어 보인다[16].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또 다른 요인으로 ADHD관련문제를 들 수 있다. ADHD관련문제란 주의집중문제, 과잉행동, 충동성의 개별요소를 포함해 ADHD문제를 통합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용어[17]이다. 본 연구에서는 DSM임상진단 기준이 반영된 아동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DSM-ADHD점수를 활용하였기에 ADHD관련문제로 변인명칭을 상정 하였다. ADHD관련문제가 있을 경우 주변 상황의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할당하지 못하며, 외부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을 빈번하게 보인다는[18] 점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저해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친사회적 행동 간 관련성을 살펴본 후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가 순차적으로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직렬다중매개하는 모형 검토를 통해 관련 변인간 통합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관련 연구들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 관련문제, 친사회적 행동 중 일부 변인들 사이의 관계

만을 살펴보거나[19] 유아 또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20]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미디어 보급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21],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사용 습관을 양성해줄 수 있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ADHD관련문제를 순차적으로 거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데이터 10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관련문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모두 응답한 아동과 어머니만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537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으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 247명 (51.0%), 여아 263명 (49.0%)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원 척도는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의 3개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권위적 양육행동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을 돕는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허용적 차원에 해당하는 35 문항만을 통합해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구인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type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881, 허용적 양육행동이 .648, 역기능적 양육행동 전체가 .878로 나왔다.

#### 2)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부모보고형으로 수정한 것을 활용하였다. 2번, 6번의 2개 문항은 어떤 요인에도 속하지 않고 합산 점수 산출 시에만 포함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type 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1요인 .736, 3요인 .671, 4요인 .586, 전체가 .827로 나타났다.

#### 3) 아동의 ADHD관련문제

오경자, 김영아[22]의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DSM ADHD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하위척도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부산하거나 한 가지 일에 주의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바라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점 Likert-type 척도이고 저작권과 관련해 각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번호는 담당 기업에 추가 요청 시 받을 수 있다. 국내 표준화 연구[22]에서 DSM ADHD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80으로 나왔다.

#### 4)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구인하기 위해 Goodman[23]의 아동의 강점과 난점 조사 교사용 질문지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3점 Likert-type 척도이고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64로 나왔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 연구문제 검증에 앞선 기초 조사로 주요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왜도 및 첨도 값을 통해 정규성 가정을 검증하였고,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주 연구문제 검증 과정이 포함된 직렬다중매개 분석에는 SPSS Process Macro 4.1 model 6을 적용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Bootstrap Confidence Interval)을 통해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을 보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평균은 2.339( $SD=.355$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평균은 2.489( $SD=.488$ )로 나왔다. 아동의 ADHD관련문제 평균은 .336( $SD=.426$ ),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평균은 1.595( $SD=.375$ )로 나왔다. 모든 측정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이 3미만, 첨도는 절대값 7미만으로 나와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경우 <표 1>에 드러난 바와 같이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p<.01$ )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치와 주요변인 간의 상관계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1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1			
2 스마트미디어 중독	.352**	1		
3 ADHD관련문제	.213**	.207**	1	
4 친사회적 행동	-.119**	-.189**	-.280**	1
<i>M</i>	2.339	1.595	.336	2.489
<i>SD</i>	.355	.375	.426	.488
왜도	.184	.591	1.746	-.680
첨도	-.131	-.353	3.964	-.378

\*\*  $p < .01$

####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효과

<표 2>와 [그림 1]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ADHD관련문제( $\beta=.160,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ADHD관련문제( $\beta=-.248, p<.001$ )의 직접효과도 유의하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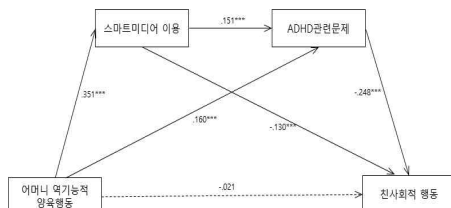


그림 1. 직렬다중매개 모형

Figure 1.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  $p < .001$ , 제시된 것은 표준화된 계수,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표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ADHD 관련문제의 경로계수

Table 2. Path coefficien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종속 변인	독립변인	<i>B</i>	<i>SE</i>	<i>t</i>	신뢰구간	
					<i>LLCI</i>	<i>ULCI</i>
스마트미디어 중독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371	.042	8.686***	.288	.456
	ADHD관련 문제	.191	.053	3.583***	.087	.297
친사회적 행동	스마트미디어 중독	.171	.051	3.380***	.072	.271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	-.028	.061	-.464	-.149	.092
	ADHD관련 문제	-.285	.048	-5.831***	-.381	-.189

\*\*\*  $p < .001$

<표 3>을 보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의 자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총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B=-.16, p<.01$ ).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의 자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라는 두 변인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 친사회적 행동 간의 직접효과와 총효과

Table 3. Total effect and direct effect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B</i>	<i>SE</i>	<i>t</i>	신뢰구간	
				<i>LLCI</i>	<i>ULCI</i>
총효과	-.164	.059	-2.781**	-.280	-.048
직접효과	-.028	.061	-.464	-.149	.092

\*\*  $p < .01$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

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B=-.063$ ,  $99\%CI=-.111, -.017$ ), ADHD 관련문제 ( $B=-.055$ ,  $99\%CI=-.099, -.018$ )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를 차례로 투입한 경우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018$ ,  $99\%CI=-.032, -.007$ ).

표 4. 어머니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아동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간접효과  
 Table 4. Indirect effect of smart-media addiction and ADHD-related behavi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B	SE	신뢰구간	
			LLCI	ULCI
총 간접효과	-.136	.030	-.196	-.079
X → M1 → Y	-.063	.024	-.111	-.017
X → M2 → Y	-.055	.021	-.099	-.018
X → M1 → M2 → Y	-.018	.007	-.032	-.007

M1=스마트미디어 중독, M2=ADHD관련문제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자녀의 환경적 변인과 심리 내적 변인의 연쇄적 영향력 즉, 간접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거쳐 친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이 역기능적일수록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이 높았고, 이는 낮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함을 밝힌 선행연구와[24] 유사하다. 양육자와 자녀 간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 내적 스트레스 사이 밀접한 관련성을 주장하는데[25],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온정과 통제의 균형을 상실해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으로 칭해질 수 있는 양상을 보일 때 자녀가 스마트미디어 중독 양상을 보이고 그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 경향 또한 저해될 수 있음을 살펴본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 아동의 ADHD 관련문제 및 친사회적 행동 사이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비밀관적, 방관적인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할 때 자녀의 ADHD관련 문제 행동 경향이 증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장면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언급한 김소영[26]의 연구와 입장을 같이 한다. 본 간접 경로를 구성하는 각 경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ADHD관련문제 경향을 증가시켰는데, 이에 대해 언어적·물리적 처벌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적대감, 폭력성과 관련됨을 밝힌 연구결과와[27] 동일한 의미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신경심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태내에서 인간은 이미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신경세포 연결망 형성을 완료한 후 출생하나 약 75%의 두뇌발달은 출생 후 10세 정도까지 이어진다고[28] 한다. 특히 두뇌 발달은 영·아동 이기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 양육자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신경세포 연결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즉, 아동기 뇌의 화학작용이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모-자녀 간 부정적 관계 체험은 자녀 ADHD관련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의 위험요인[29]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간접 경로를 구성하는 또 다른 경로에 따르면 아동의 ADHD관련문제가 친사회적 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ADHD관련문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같은 증상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제한적임을 언급한 연구와[18] 일맥상통한다. 즉, ADHD관련문제는 증상의 고유 특성 및 대인관계의 반복적 결핍과[30] 관련해 사회적 단서를 인식하거나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제한하는[31] 요인임을 드러낸다. 본 연구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의 형성을 위해 아동의 ADHD관련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을 탐색한 의의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ADHD관련문제의 직렬다중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미디어 중독으로 유발된 ADHD관련문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에 대

한 개입이 선행적으로 주어질 경우 그 부정적 영향력이 상쇄되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해 보인다.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32]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구성하는 3개 하위요인(예,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중 유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현저성 요인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현저성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중 아동의 응답값 평균이 가장 높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였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아동에게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그들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좋아하는 활동으로 평가됨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변화를 기반으로 영유아와의 정서적 상호작용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시간 보다 더 즐거운 경험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 ADHD관련문제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P. F. Hearron, and V. Hildebrand, "*Helping young children develop social competence*" Boston: Pearson, 2013.
- [2] P.M. Cole, B.A. Usher, and A. P. Cargo, "Cognitive risk and its association with risk for disruptive behavior disorder in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22, pp. 154-164. 1993.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202\\_3](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202_3)
- [3] C.C. Raver, and E.F. Zigler, "Focus Section: New Perspectives on Head Start.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 12, No. 4, pp. 363-385. 1997. [https://doi.org/10.1016/S0885-2006\(97\)90017-X](https://doi.org/10.1016/S0885-2006(97)90017-X)
- [4] K.N. Kwon, "The Influence of Young Children's Affective and Cognitive Empathy and Peer Competence on Behavioral Problems", *Korean J Child Stud*, Vol. 38, No. 1, pp. 217-231, 2017. <https://doi.org/10.5723/kjcs.2017.38.1.217>
- [5] I. Kim, S.C. Bae, and W.S. Kim, "The Impact of Adolescents' Parents,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linquency Experience", *IJACT*, Vol. 10, No. 4, pp. 168-174, 2022.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4.168>
- [6] D. Grewal, and P. Salovey, "Felling smart: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merican Scientist*, Vol. 93, No. 4, pp. 330-339. 2005. <https://doi.org/10.1511/2005.54.969>
- [7] W.C. Becker,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 L. Hoffman and L. W. Hoffman, 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pp. 169-208.
- [8] U. Bronfenbrenner, U.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32, No. 7, pp. 513-531. 1977. <https://doi.org/10.1037/0003-066X.32.7.513>
- [9] D. Baumrind,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Vol. 75, No. 1, pp. 43 - 88. 1967
- [10] J. Blatt,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https://doi.org/10.1037/10749-000>
- [11] B. Soenens, and M. Vansteenkiste,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Vol. 30, No. 1, pp. 74-99. 2010. <http://dx.doi.org/10.1016/j.dr.2009.11.001>
- [12] F. Romm, A. Metzger, and L.M. Alvi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problematic outcom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29, No. 1, pp. 195-207. 2020. <https://doi.org/10.1007/s10826-019-01545-y>
- [13] S.R. Lim,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ositive paternal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elf-efficacy on school age boy", Ehwa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 [14] J.S. Yang, and J.Y. Kim, "A Case Study on the Wearable Device in the New Media Age -Focused on the Portable Device-", *KSDC*, Vol. 20, No. 2, pp. 353-363, 2014.
- [15] J.H. Shin, Y.H. Kim, and Y.S. Oh, "2020 Korea Media Panel Survey",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ol. 2020, No. 15, pp. 1-398, 2020.
- [16] S.B. Seol, H.W. Lee, K.S. Lee, and M. S.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Infants' Visual Media Overindulgence on their General Development and Social & Emotional

- Development”, *KJIMH*, Vol. 10, No. 1, pp. 45-58, 2017. 10.47801/KJIMH.10.1.3
- [17]S.W. Nikkelen, P.M. Valkenburg,, M. Huizinga, and B.J. Bushman, “Media use and ADHD-related behavio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No. 50, Vol. 9, pp. 2228-2241, 2014. <https://doi.org/10.1037/a0037318>
- [18]D.R. Blachman, and S.P. Hinshaw, “Patterns of friendship among girls with and withou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30, No. 6, pp. 625-640. 2002. 10.1023/A:1020815814973
- [19]Y.J. Park, “The explanatory of personal, family, social variables on school adjustment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8, No. 1, 39-57. 2019. 10.17643/kjce.2019.28.1.03
- [20]T.R. Kim, and Y.M.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phone addiction and school adapt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32, No. 3, pp. 185-210, 2016. 10.18859/ssr.2016.08.32.3.185
- [21]J.Y. Kim, “Olbareun seumateupon sayongseupgwan”, Segyeilbo. Retrieved August 31, 2023,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170402001388?OutUrl=naver>
- [22]K.J. Oh, and Y.A. Kim, “*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Seoul: Huno,
- [23]R. Goodman,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No. 38, Vol. 5, pp. 581 - 586. 1997. 10.1111/j.1469-7610.1997.tb01545.x
- [24]H.Y. Kim, and M.J. Kim,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Korean J Child Stud*, Vol. 41, No. 1, pp. 105-121, 2022. <https://doi.org/10.5723/kjcs.2020.41.1.105>
- [25]M.N. Ko, “The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ization”, *JCCT*, Vol. 9, No. 4, pp. 171-174,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171>
- [26]S.Y. Kim, “Linguistic Traits Observed in Sentence Completion Tests of Children with Emotional·Behavioral Difficulties”, Daegu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 [27]H.J. Park, and Y.H. Kim, “ Impact of Young Children on Their Familie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 4, No. 2, pp.45-58, 2000.
- [28]B.H. Park, “Brain Study Resul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8, No. 1, pp. 115-134, 2000.
- [29]J.H. Choi, “*The effect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s responsive and warm parenting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Ehwa University Master Thesis, 2017.
- [30]G.W. Ladd, B.J. Kochenderfer, & C. C. Coleman,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No. 67, Vol. 3, pp. 1103 - 1118. 1996. <https://doi.org/10.2307/1131882>
- [31]J. D. McQuade, and B. Hoza, “Peer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ADHD”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R. A. Barkley Ed, The Guilford Press., pp. 210 - 222. 2015.
- [32]Y.S. Yu,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trieved September 6, 2023, from <https://www.nia.or.kr>

※ 이 논문은 2021년도 동양대학교의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